

오피니언

다산포럼

유지나



“우리 한국인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제대로 던질 수 없게 되어 있다.” 한국 남성으로 매우 솔직하게 남자를 위해 고백한 전인권 선생님(가수 전인권이 아니라)이 ‘남자의 탄생’ 서문에서 한 이야기다. 여자도 예외가 아니다.

사람은 매우 불행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힘겨운 인생이란 생각도 든다.

특히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09 글로벌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 일본보다 한참 뒤져서, 거의 바닥을 치

제2의 인생, 호모루덴스로 살기

는 115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긴 끊임없이 이어지는 유력 남들의 성희롱 및 성추대 사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역사는 일등만 기억한다는 경쟁 중독 기업의 광고 문구를 원용해보면, 한국은 남성적인 여성이건 평생 살아내기 매우 힘든 가장 불행한 나라로 2천년대 역사에 기억될 판이다. 비탄만 일이다.

이렇듯 억압적이고 무거운 출세 압박 사회 속에서 자살률까지 증가하는 한국사회 구성원인 우리에게 자신을 해방시키며 즐겁게 살기 프로젝트는 필수 덕목이다. 그것은 ‘호모 루덴스로 살기’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네덜란드 인문학자 요한 하위

징어의 ‘호모 루덴스 : 놀이하는 인간’이 최근 다시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인문교화의 핵심을 놀이에서 발견한 그는 우리 삶의 행복과 의미 또한 놀이로부터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유교사상의 근간인 공자님도 “知之者不如好之者, 好之者不如樂之者”(지지자불여호지자, 호지자불여락지자)란 말을 남겼으니, 호모루덴스적 인간 되기를 주창한 셈이다.

호모 루덴스는 놀이·예술을 하는 인간이다. 어린 시절 우리는 놀이에 빠져 살았던 건만 어른이 되면서 강요된 학습과 성공

하기에 매몰돼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것을 잊은 건 아닐까? 그러나 사는 게 재미 있을 턱이 없다. 그러나 평균수명 연장으로 정년 후에도 한 세대에 해당되는 30여 년을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속내와 다시 만나 진정 자신이 좋아하는 행위를 하며 제2의 인생을 열어야 할 필요성이 절박하다.

다큐멘터리 ‘톡르를 인생’을 보노라면 80대 노인들의 호모루덴스로 제2의 인생 살기가 마음을 울린다. 몸뚱이 종합병원인 80대 노인들이 록밴드로 변신하면서 노래하는 인생살이를 사회와 나눈다. 교도소 위문공연도 가고 무대에도 서는 이

들은 심지어 병원에서도 노래를 불러 의사를 웃기는 즐거운 존재로 변신한다.

예술의 힘이다. 비루한 삶에 사달리는 60대 여성의 ‘시 쓰기’가 핵심인 ‘시’도 호모 루덴스로 사는 제2의 인생을 보여준다. 실직한 중년남성들이 밴드를 결성하는 ‘즐거운 인생’이나 장년퇴임을 록 콘서트로 장식하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 같은 영화들에서도 왕년에 탐닉했던 음악놀이를 되찾은 즐거운 제2의 인생이 드러난다. 곧 개봉할 다크영화 ‘기적의 오케스트라-엘시스테마’에선 베네수엘라의 가난한 비행 청소년이 음악을 통해 거둔다는 인생 구원담을 보여준다.

세상의 도덕, 세속적 가치는 삶을 변화시키는데 역부족이다. 그보다는 자기 속으로 파고들어가 놀이하는 즐거운 인간으로 살기를 시도해 보는 게 필요하다. 즐거운 삶은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놀이를 일상과 접목시키는데서 시작한다.

예술은 가수, 화가, 작가만 하는 것이 아니며, 돈벌이용만도 아니다. 그저 삶 자체이며, 삶의 방식으로 채택해야 하는 호모 루덴스 되기의 필수 덕목이다. ‘죽은 시인의 사회’의 명대사처럼 인간은 열정에 가득 차 있다. 돈벌이 출세를 인간으로 그 누구도 자기 인생을 구하기 힘들다.

〈영화평론가·동국대 영화영상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GO 칼럼

허정순



“너희들 열 친구들을 보라. 친구로 보이나? 아니다.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다.”

이 영화 ‘고사(死)’ 속 선생님의 대사다. 내 옆에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더 이상 친구가 아닌 나와 경쟁을 해야 하는 라이벌이다.

어떤 개그맨의 개그처럼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다. 친구도 없는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진정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

는 교육이 아닌, 성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를 교육하는 것이 맞다. 성폭력 가해자들은 자신이 행한 행위로 피해자가 어떤 후유증으로 평생을 힘들어하는지 알아야 한다. 딸이나 배우자, 어머니가 그런 피해를 겪는다고 생각하며 가해자들은 교육과 반성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성적욕구가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이다. 자신의 욕구를 알고 건강하

성폭력 예방 ‘성 의식’ 개선부터

연일 터지는 아동 성폭력사건이 주변을 점점 흉흉하게 만든다. 많은 이는 묻는다.

여성단체나 성폭력상담소에서 여성 성폭력운동을 하고 있는데 왜 줄어들지 않느냐고. 답답하다.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전자발찌나 화학적 거세 등의 이벤트(?)성 방안들을 제시하지만 기본적으로 나 하나의 욕구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은 가볍게 여기는 사회가 지속되는 한 성폭력 역시 꾸준할 수밖에 없다.

성폭력은 인권의 문제이다. 40대 아저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던 15세 여학생은 성폭력 이후 다른 아저씨를 보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고, 옷에 소변을 보는 등의 행동을 했다.

이처럼 성폭력은 한 인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며,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이다. 결코, 성폭력은 조금 난폭한 성관계가 아니다. 절대 성관계일 수 없는 것이다.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은 일방적인 성행위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상대방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성폭력예방교육을 통해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을 교육한다. 하지만, ‘위험하니 밟게 다니지 마라’

는 교육이 아닌, 성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를 교육하는 것이 맞다. 성폭력 가해자들은 자신이 행한 행위로 피해자가 어떤 후유증으로 평생을 힘들어하는지 알아야 한다. 딸이나 배우자, 어머니가 그런 피해를 겪는다고 생각하며 가해자들은 교육과 반성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성적욕구가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이다. 자신의 욕구를 알고 건강하

는 청소년들은 비뚤어진 성문화를 무분별하게 답습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이 많은 청소년 가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성희롱적인 발언들이 자연스럽게 의원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더라도 성폭력을 조장하는 환경들이 우리의 주변 곳곳에 널려 있는 것이다.

이벤트성 처벌로 성폭력이 없어지기 어렵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성폭력을 근절해야겠다는 의지로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 사회의 성 의식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근본적이다. 아이를 혼자 두지 말라고 하는 문구보다 성폭력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의식의 전환을 광고해야 한다.

▲이은숙·광주시 북구 지양동

횡단보도 위 ‘빨리빨리’ 노인 배려 아쉬워

얼마 전 출근길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섰다. 할아버지 한 분이 리어카에 정갈 산더미 같은 폐지를 가득 싣고 느린 속도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그때 누구도 할아버지의 리어카를 밀어드리지 않고 사람들은 할아버지 옆으로 회회 지나쳤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절반도 건너지 못했는데 이미 신호는 빨간색으로 바뀌었고 성질 급한 차들은 할아버지 리어카 사이로 그대로 질주했다. 너무나 위험했지만 서로들이

필 수 없어 보였다. 그런데 내 옆에 있던 승객이 그 할아버지를 보며 “뭐 하는 거야, 빨리 안가고~”라며 투덜댔다.

이럴 때 모든 차와 승객 모두 할아버지가 완전히 건너기를 기다렸다가 출발할 수는 없을까. 서로 급하고 바쁜 거야 알지만 그래 봤자 2~3분인데. 나이 들면 모두 다 늙는데 입장 바꿔 생각해볼 필요도 없이 정말 우리는 너무 내 생각만 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물어 봤으면 한다.

▲이은숙·광주시 북구 지양동

기고

유순남



얼마 전 ‘영 교시에 체육을 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집중력이 좋다’는 조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주변에서 반신반의했던 사람들에게 확실한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논란은 잠잠해졌다. 혹자는 집중력은 하루 중 십 분만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식혀도 오른다고 한다. 내 생각은 하루 중 적어도 십 분 정도만 긴장을 풀어도 스트레스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 4월, 이십여 년 만에 다시 전남

에 선생님들과 빨리 친해지려고 함께하기로 마음먹고 집 방향이 같은 선생님들과 카풀을 하기로 했다. 다음날 아침 출근길. 그 바쁜 시간에 선생님들은 빠른 간식과 커피를 나누며 가릴 때 옆길에서 ‘십 분의 여유’를 즐겼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고3까지 가장 많이 갈 30~40대 주부 여교사들이 매일 아침 출근길에 ‘십 분의 여유’를 갖는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내게는 무척이나 신선하게 느껴졌다.

게다가 아침을 거른 사람들 위해 앞

십 분의 미학

도 내에 있는 중등학교에 강사로 나가게 되었다. 학교 사정이 급하다는 말에 곧바로 결정을 했다. 처음엔 한동안 옛 직업에 대한 낭만적인 추억을 즐겼다. 하지만, 나이 많은 나로서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다행히 교장, 교감선생님은 물론이고 의외로 젊은 선생님들이(나보다) 무척 친절하게 대해줘서 금방 학교생활에 익숙해졌다. 말끝마다 “선생님!, 선생님!” 하는 말소리만으로도 내게 안정감을 주었다.

그동안 거친 세파에 찌들어 살았던 나는 선생님들의 친절에 적응하지 못해 잠시 혼란스러울 정도였다. 흔히들 버릇없는 젊은이들을 보면 “요즘 젊은 것들은 싸가지가 없어!”라고 적혀있다는 고대 그리스의 오래된 톨에 새겨진 글귀를 생각하며 위로하곤 한다. 그런데 이 학교의 젊은 선생님들은 그런 글귀를 무색하게 한다.

‘이런 친절의 근본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얼마 동안 답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원 봄 꽃놀이’를 간다가

다투어 샌드위치나 쥬스 등의 간식을 챙겨온다. 그들은 밑재 휴게소에 있는 정자에 올라 간식과 커피를 나누며 멀리 보이는 풍경을 즐긴다. 또는 갖가지 야생화에 취해 있는 선생님들도 있다.

그들 덕분에 예전에 몰랐던 많은 야생화의 이름도 알게 되었다. 우단동자, 수레국화, 각시 패랭이, 양귀비꽃 등. 유일한 남자선생님은 돌계단에 앉아서 멀리 물안개 피어오르는 저수지를 바라보며 마치 안개를 만들어내는 자연을 흉내 내기도 하듯 길게 담배 연기를 내뿜는다.

수업과 잠무 그리고 집안일에 사달리면서도 항상 밝고 상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침 십 분의 여유였구나!’ 하고 생각했다.

아침 십분! 힘든 일 일수도 있지만 거르면 배고파서 챙겨 먹는 아침식사처럼 습관을 들이면 하루가 좀 더 여유롭지 않을까? 〈영광여자중학교 수준별 수학 강사〉

‘농촌 교육’ 활성화로 폐교위기 시골학교 살려야

전라북도 임실군 대리초등학교는 작년까지만 해도 전교생이 불과 16명에 그쳐서 폐교될까라고 다들 믿고 있었다.

하지만, 임실교육청과 대리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돌아오는 농촌교육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올해 전교생이 54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 대리초등학교에 입학한 대부분의 전학생과 신입생은 멀리 서울, 부산, 심지어 제주도 등지에서 왔다고 한다.

대리초등학교 주변에는 가족농장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했고 입학식 학부모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짰다.

농장을 통해 평소 학습시간에는 식물들

가꾸고 재배하는 과정을 스스로 배우도록 하고, 또 식물에 대한 탐구심을 키우고, 자연친화적 인성을 길러주는 교육이 자연스럽게 실천되었다.

학부모들 역시 집에서 먹는 각종 야채류를 이곳에서 분양받은 농장에서 재배하니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다면 그 학생 주위의 친척들이 그곳으로 캠핑과 휴가까지 찾아온다는 것이다.

전남·북에 폐교 위기에 몰린 모든 학교들과 마을 사람들이 이런 모범적인 사례를 다시금 참고삼아 학교를 구해냈으면 좋겠다.

▲유진규·여천시 신덕동

시설

기업 양극화 제도·시스템으로 풀어야

최근 기업 양극화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잇달아 공식 언급하면서 경제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이다.

사실 대기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대기업은 현 정부의 비즈니스프렌들리 정책에 힘입어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면서도 일자리 창출이나 중소기업 지원 등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돈이 들어오는 중소기업 영역까지 침범하는 등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기업의 횡포는 ‘고질병’으로 굳어지다시피 하고 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물론이고, 인력 빼가기, 영역 침범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이 때문에 대기업은 수조 원의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불황 속에 부도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기업 양극화는 서민과 지방경제를 멍들게 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지방기업

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서민의 일자리이다. 따라서 대기업의 횡포가 심하면 심할수록 지방경제와 서민경제는 파멸할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가 지표 상으로는 완전회 회복기에 접어들었지만 서민과 지방경제는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동안 대기업은 기회 있을 때마다 중소기업 지원과 상생경영을 외쳐왔지만 일회성에 그쳤다. 이는 상생경영을 뒷받침할 제도와 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생경영을 앞장서 실천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중소기업을 옹호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제도화해야 하는 이유다.

중소기업은 서민과 지방경제의 근간이다. 정부는 이번만큼은 산업계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 중소기업의 활로를 찾아줘야 할 것이다. 그래야 지방경제, 나아가 국가경제가 산다.

무질서 줄어든 피서지 ‘관광 전남’ 기대 크다

피서철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바가지 상환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 피서지의 무질서다. 모처럼 휴가를 나왔다가 바가지 상환에 기분만 상하고 해수욕장 등지에 마구 버린 쓰레기로 인해 좋지 않은 인상을 주었던 게 피서지의 현주소였다.

전남도와 해당 시·군·읍·면사무소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지도와 단속에 나서고 홍보에도 열을 올렸지만 변화는 애초부터 기대안이었다. 피서객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다보니 상인들의 입장에서 한 몫을 잡아야 하고 그 많은 쓰레기도 사실 ‘처치곤란’이었다.

그런데 이번 피서지의 모습은 예전과 다르다고 한다. 바가지 상환과 쓰레기 투기 등이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8월의 첫 휴일이 1일 안도 신지 명사십리와 해남 송호, 보성 울포 해수욕장 등지를 대상으로 분포가 취재에 나선 결과, 피서객들이 물러 극심한 혼잡을 보였지만 바가지 요금 등 무질서는 대부분 사라

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시·군들이 현지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 수거할 설치와 처리 등 사전 대책을 마련한 게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관청은 시설의 민박과 펜션단지가 활성화되면서 숙박시설 개선은 물론 업소의 자정 결의가 이어져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은 많다. 주차장 확보가 가장 큰 과제라 할 수 있다. 피서객들이 몰고 온 차량이 북새통을 이루다보니 해수욕장 주차장은 물론 인근 도로와 주택가까지 승용차로 뒤덮여 피서객은 물론 주민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차량을 주차하지 못해 돌아가는 관광객도 많다고 하니 해수욕장 부근의 학교 운동장이나 공터 등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모처럼 조성된 피서지의 이러한 고무적인 현상이 확산돼 ‘관광 전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無等鼓

연일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폭염주의보는 여름나기의 일상사가 됐다. 지구촌 곳곳에서 맹렬 더위로 인한 각종 재해도 그치지 않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기록적 폭염과 가뭄이 겹치면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당국은 최근 폭염과 가뭄으로 모두 774건의 화재가 13만ha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럽과 중국, 미국 등지에서도 폭염으로 아우성이다. 기상이변으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사실은 지구인 전체가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문제

다. 그러나 여름마다 점차 용광로처럼 달궈지는 지구를 식힐 수 있는 묘안을 찾기 어렵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한반도의 기온은 과거 30년간 약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기온 상승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3년 전 발표된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협의체(IPCC) 4차 보고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21세기 말에는 지구 온도가 최고 6.4℃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한여름의 강렬한 햇살이 없다면 한여름의 풍성함이 열거되는 힘들다. 한창 푸른빛을 띠어가는 벼는 뜨거운 햇볕의 입김이 있어야 이삭이 패고 낱알이 익는다. 가을이 제철인 과일이 텅

글썽글썽하게 윤기가 나려면 한여름을 뜨거워야 한다. 너무 뜨거워 사뭇을 지치게 하는 태양이지만, 결실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다.

폭염이 시달리느라 시간가는 줄 가늠하지

다. 그러나 여름마다 점차 용광로처럼 달궈지는 지구를 식힐 수 있는 묘안을 찾기 어렵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한반도의 기온은 과거 30년간 약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기온 상승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박치경 사회부장 un ipark@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錫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慶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12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채우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핑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다 시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3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